

보건복지부		보 도 참 고 자 료		
배 포 일		2020. 4. 22. / (총 9매)		
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	팀 장 담 당 자	홍 승 령 김 영 은	전 화	044-202-3575 044-202-3805
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	과 장 담 당 자	노 혜 원 이 승 훈	전 화	044-200-2293 044-200-2295
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	팀 장 담 당 자	양 윤 석 황 지 민	전 화	044-202-3155 044-202-3804
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방역팀	팀 장 담 당 자	조 우 경 김 은 경	전 화	043-719-7260 043-719-9081
외교부 개발협력과	과 장 담 당 자	강 용 구 홍 상 희	전 화	02-2100-8137 02-2100-8138
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	과 장 담 당 자	이 시 혜 송 재 원	전 화	044-201-2111 044-201-2116
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	과 장 담 당 자	권 준 영 주 상 호	전 화	044-200-5420 044-200-5425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

- ▲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(TF) 운영 계획
- ▲농업 분야 코로나19 대응 ▲수산물 소비·수출 동향 및 향후 계획
- ▲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 등 -

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(국무총리)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·도와 함께 ▲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 협력 총괄 태스크포스(TF) 운영계획 ▲농업 분야 코로나19 대응 ▲수산물 소비·수출 동향 및 향후 계획 ▲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 방역 기본수칙 공개 등을 논의하였다.

-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, 소중한 우리 농수산물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이 노력해 주고, 특히 대도시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유통·소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또한 이번 4월 15일 총선에 활용된 비접촉식 체온계가 부족한 곳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해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- 아울러 상황은 안정세지만 5월 5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, '생활 속 거리 두기'로 전환할 수 있도록, 고삐를 조여 조금 더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.

1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(TF) 운영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국제 사회의 「K-방역」 경험 전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'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(TF)'를 새로 구성하기로 하였다.
- TF는 외교부 2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, 질병관리본부,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격주로 개최한다.
- TF의 목적은 국제 방역협력 경로를 일원화하여 국제사회의 협력 요청 수요와 우리가 공유해 줄 수 있는 방역 경험을 총괄·조정하는 것으로, 주제별 웹세미나·화상회의·정책자료 공유 등의 방식으로 체계적 협력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.

2 농업 분야 코로나19 대응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, 등교 연기 등으로 인해 소비 위축을 겪고 있는 화훼 및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.
- 먼저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화훼 구매를 추진하고 민간의 소비 확산을 유도한다.
 - 농식품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약 602만 송이를 구매하였고(4.20. 기준), 대기업, 은행* 등 민간 부문에서도 화훼 소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.
 - * 삼성전자, 은행연합회, SK텔레콤, LG CNS 등 꽃 구매·기부 추진
 - 연예인·방송인*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‘꽃 소비 부케 챌린지’ 및 대구·경북 의료진 대상 꽃 기부 행사 등을 통해 건전한 꽃 소비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.
 - * 유재석, 펑수, 이휘재·문정원, 도티, 홍현희, 이광수, 이종혁, 쓰양, 이원일 등 19명 동참
- 정부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하고, 농협·생협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할인 판촉을 지원한다.
 -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공동구매, 할인 판촉 등을 통해 4월 21일 기준 친환경농산물 총 1,531톤에 대해 대체 판로를 지원하였다.
 - 또한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(1차 7,509명 공급 완료, 2차 4만 5000명 공급 중)하기 위해 피해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87.7톤을 구매하였다.
- 계절 근로자 입국 지연 등에 따라 농업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, 농번기를 앞두고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중개 확대와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 확보도 중점 추진한다.

- 우선, 계절 근로자 입국 지연 및 농촌 봉사활동 축소로 일손 부족이 예상되는 **22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추가로 설치(70개소→92)하고**, 전담인력 운영,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및 숙식비 등을 제공한다.
- 또한 방문동거(F-1) 외국인,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고용허가제(E-9)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,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연결하여 계절 근로자 입국 지연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한다.
- 농식품 유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의 농촌일손돕기 추진과 함께 국방부 협조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**군 인력의 농번기 일손돕기 참여도 확대할** 예정이다.
-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(300억 원), 재해대책경영자금(600억 원, 3.18~)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고,
 - 특별재난지역(대구, 경산, 청도, 봉화) 농업인에게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감면(2.5%→0%) 및 상환연기(1~2년) 등 금융 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.
-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유통채널 확산에 대비하여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유통 경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.
 - 온라인 경로별 특성을 감안하여 농산물 입점을 지원하고 대대적인 판촉 기획전도 개최할 예정이다. 또한 홈쇼핑 정규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.
 - 나아가 농업인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모바일 쇼핑몰 및 콘텐츠 제작, 상담·조언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3 수산물 소비·수출 동향 및 향후 계획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산물 소비와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, 단기 소비심리 회복과 수출 지원 및 비대면 거래 기반 확대 등 중장기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.
 - 코로나19 발생 이후, 수산물 소비는 외식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양식 수산물을 중심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으며, 중국과 일본 등 수출시장의 침체로 수산물 수출액도 지난해 대비 8.0% 감소하였다.
 - * 수산물 수출액(1.1~4.14, 6.5억 달러)은 전년 대비 8.0%(△0.6억 달러) 감소
- 그동안 수산물 소비와 수출 회복을 위하여 비대면 중심 소비 촉진 행사*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지원을 병행하고, 우수 수산물 수출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무역 애로 해소 등에 집중해 왔다.
 - * (2.29~4.20) ①온라인 상생 할인, ②도매시장 드라이브 스루, ③공공기관 상생 구매, ④대형마트 할어 특판
- 앞으로도 소비심리 회복과 수출업계 지원을 지속 추진하며, 비대면 거래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.
 -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소비 진작(봄엽) 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심리 회복을 촉진하고, 수출업계의 온라인 상담 지원 등 현지 시장 맞춤형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.
 - 중장기에는 온라인 구매 경험 확산 등 소비 추세(트렌드) 변화에 대응하여, 온라인 유통물류 시스템 확충, 온라인 무역상담 등 비대면 거래 기반도 지속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.

4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생활 속 거리 두기(생활방역) 집단방역 기본수칙(안)을 공개하였다.

○ 지난 4월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‘개인방역 기본수칙(안)’ 및 ‘개인방역 보조수칙(안)’을 발표한 이후, 추가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‘집단방역 기본수칙(안)’을 발표하는 것이다.

<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(안) 개요 >

	기본수칙	보조수칙
개인 방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아프면 3~4일 집에 머물기 2 사람과 사람 사이,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 30초 손 씻기, 기침은 옷소매 4 매일 2번 이상 환기, 주기적 소독 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마스크 착용 2 환경 소독 3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4 건강한 생활습관
집단 방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2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3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4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5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	<p>【 추후 공개 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각 시설 별 세부지침 마련 중 <p>* 사무실, 대중교통, 음식점, 쇼핑시설 등 시설 및 결혼·장례 등 구체적 상황 고려</p>

○ 집단방역 기본수칙(안)은 ①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(집단방역의 원리), ②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, ③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, ④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, ⑤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의 5개 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.

-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‘방역관리자’를 지정하여 운영하고, 앞으로 공개할 집단방역 보조수칙(세부지침)을 참고하여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한다.

-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(체온, 호흡기 증상 여부 등) 등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(예: 사업장의 고용주 등)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.

* [별첨]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(안) 참조

○ 이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(ncov.mohw.go.kr), 보건복지부 누리집(moh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

-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.
-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무실, 대중교통, 음식점, 쇼핑시설 및 결혼·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(세부지침) 역시 부처별로 마련·확정하여 순차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- < 붙임 > 1. 코로나19 보도 준칙 (한국기자협회)
2.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

< 별첨 >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(안)

- < 홍보자료 별첨 > 1. 코로나19 예방수칙
2.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
3.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
4.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
5. <일반 국민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
6. <확진자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
7. <격리자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
8. 마스크 착용법
9.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

붙임1

코로나19 보도 준칙 (한국기자협회)

□ 한국기자협회 「코로나19 보도 준칙」 (2020.2.21.)

- 다음은 2020년 2월 21일,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「코로나19 보도 준칙」의 주요 내용으로,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1.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.

2. 세계보건기구(WHO)의 공식 병명은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'입니다.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.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, 사람 이름, 동물·식품 종류, 문화, 주민·국민, 산업,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 지역명을 넣은 '○○페렴' 등의 사용은 국가·종교·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,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,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.

3.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·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,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.

※ 참조 :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,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

2020년 2월 21일

한 국 기 자 협 회

붙임2

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

[일반국민]

1.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.
2.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.
3. 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을 만지지 마십시오.
4.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
5.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.
6. 발열,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.

[고위험군] : 임신부, 65세 이상, 만성질환자*

* 당뇨병, 심부전, 만성호흡기 질환(천식, 만성폐쇄성질환), 신부전, 암환자 등

1.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.
2.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
[유증상자] : 발열이나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나타난 사람

1.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.
2.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-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.
3.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,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.
4.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5.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.

[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]

1.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.
2. 격리자는 의료인,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.